



## ‘총알탄 사나이’ 광주시청 김국영 100m 10초16 한국新

36년만에 결승진출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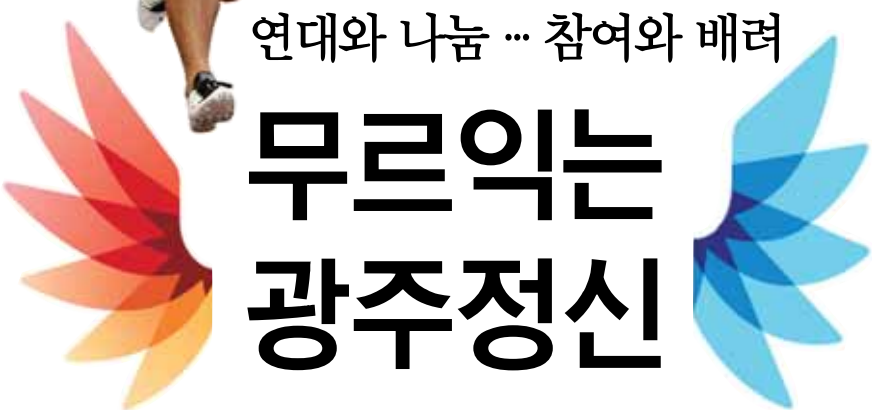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4·광주시청)이 안방에서 남자 100m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우승자 애카니 심바인(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니버시아드 남자 100m

사상 최초로 9초대 기록(9초97)을 세웠다. 김국영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010년 10월7일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세운 자신의

기록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이다. 기록을 확인한 김국영은 두 팔을 들어 환호했다. 초속 1.8m의 뒷바람이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전체 3위로 결승 무대에 오른 김국영은

결승전에서 10초31로 6위를 기록했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1979년 멕시코 U대회에서 서말구가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36년 만에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김국영은 한국 육상을 10초1대로 끌어올림과 함께 오는 8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 티켓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한편, 이날 육상 신기록이 쏟아진 육상 경기장 트랙은 전남지역 토종업체인 플러버가 기존 저가 고무분말 대신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섞어 시공한 것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1등급인 ‘클래스(Class)-1’ 인증을 받았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연대와 나눔 ... 참여와 배려

## 무르익는 광주정신

지진 참사 네팔 선수단 지원·아이티 등 선수 돕기 활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광주정신’으로 무르익고 있다. 중반을 넘어선 대회는 연대와 나눔, 참여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남도의 정이 어우러져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높은 시민정신은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내전과 지진,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각종 선수단의 소식에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친절한 손님맞이로 광주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선수단이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이 같은 ‘남도의 정’을 무한 전파하면서 그동안 온라인상에 난무했던 허풍담과 비하 발언 등이 뒤로 밀려 자취를 감추는 등 광주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U대회 참가국 144개국 중 1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한 국가는 45개국(31%)으로, 상당수가 국제대회에 선수조차 보내기 힘든 국빈국이다. 이들은 항공료 등만 겨우 지원받고 대회에 참가한 탓에 변변한 운동장비조차 없어 광주시민의 ‘연대와 나눔정신’이 빛을 내고 있다.

카리브해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알티모스(26·태권도 선수)는 보호장구조차 갖출지 못했다는 사연(광주일보 6일자 1면)이 알려진 이후 장구는 물론 체육비 지원까지

각종 후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진 대참사로 전 국민이 고통에 빠진 네팔 선수단도 광주시민의 모금으로 대회 참가의 꿈을 이뤘다.

최근에는 운동복은커녕 선수촌 식권 구입비용 등을 아껴 모국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다는 타지키스탄 태권도 선수들의 딱한 사정에 광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답지하고 있다.

작지만 진심을 담은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도 각종 선수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갑작스런 장맛비 예보가 내린 지난 7일 새벽 출근길에 집 안에 있던 우산을 들고 나와 선수들에게 우산 300여개를 전달했다.

소규모 참가국을 중심으로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는 광주시민의 따뜻한 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의 발길이 잦은 도심 변화가와 재래시장 상인들도 물건값을 깎아주고 담까지 얹어주는 등 남도 의 정을 듬뿍 안겨주고 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배려와 포용의 광주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U대회 기사 2·3·4·5·14면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이 9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김영수 광주일보 사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변용식 TV조선 사장 등 내빈들이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경인일보=임영수기자

## 팔도 볼거리 ‘多’ 모였다

한신협·TV조선 공동주최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9~11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서 열려

### 을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TV조선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이 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TV조선 변용식 사장, 김영수 광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TV조선 변용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각지의 관광 명소와 볼거리, 먹거리

를 한 데 모은 관광대전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축사를 통해 “유력 언론들이 합심해 마련한 관광대전이 대한민국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 DDP 알립2관에 총 80개 홍보 부스가 설치된 관광대전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팔도의 관광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소개하는 관광 명소와 축제, 먹을거리와 공예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은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 심리회복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을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관광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외래 관광객 1400만명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엔저와 메르스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과 확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박지경기자 jkpark@ /정의중·황준성기자 jejk@kyeongin.com

###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항소심 유죄 징역 1년 집행 2년... “즉시 상고”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6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의 예상 밖의 선고를 받음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물론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고법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 당장 상고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오고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되어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